

原電弘報에 對한 國民의 要望

서정남

〈環境經濟新聞社 社長〉

원자력발전. 이에 대한 반대주장이 최근에 이르러 무모하리 만큼 고조·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반대주장의 씨앗이 어떤 시각에서 싹이 텃든 간에 사사건건 시비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기가 우리 문명과 사회발전에 끼친 영향을 재조명하며, 자원빈국이 이땅에 에너지 유토피아를 건설코자 노력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지에 제동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역사는 에너지발전과정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때, 그 에너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바로 전기라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농경사회에서 목가적 생활을 영위하던 우리가 삶의 패턴을 산업사회로 급선회하면서 이해시킨 것이 물질적 풍요만 거두면 복지사회가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일 먼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환경오염문제였다. 이같이 환경오염이니 하는 환경문제가 확산되어질 무렵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원전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1887년 건달불이라고 불리어진 전기가 경북 궁내 건청궁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던 날 왕은

물론 그곳에 몰려든 구경꾼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일화속의 전기. 궁내 연못에서 물을 얻어 석탄연료로 발전기를 돌렸다는데,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들었고 연못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물고기가 폐죽음을 했다고 한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소위 우리나라 환경보호론자들은 일컬어 발전과정에서의 환경오염효시를 이 건달불에 두고 있으며, 그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생산에 있어서의 환경오염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백년 전의 전기와 오늘, 그리고 1백년 후의 전기, 즉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력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고 절대다수의 국민적 합의점이 도출된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라 할 수 있다.

가장 깨끗한, 소위 클린에너지원이라 불리는 원자력발전. 이에 대한 반대주장이 지금도 도처에서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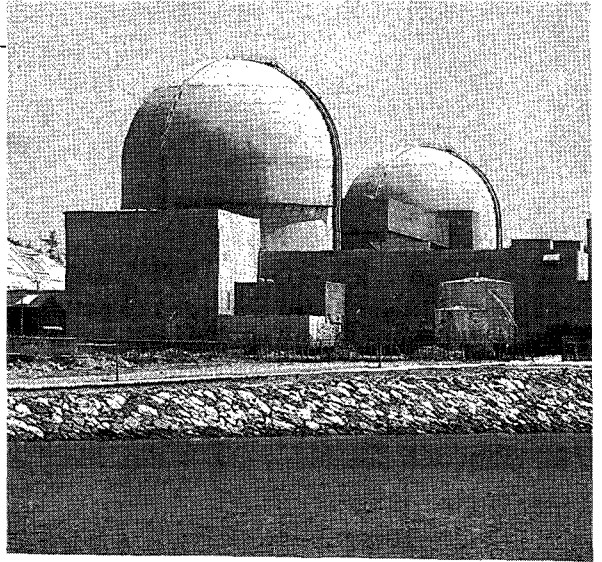
環境 파괴는 人間이 주범

태초에 우리 인간은 환경오염과는 거의 무관한 육지와 바다,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울창한 산림, 광활한 평야 등과 같은 자연환경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려 왔다. 그러나 이같은 자연환경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이 먹고 입고 일하고 사는데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며, 이 지구상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은 경제활동과정에서 점점 고갈되고 황폐되어 있는 것이다. 인적이 닿지 않았던 울창한 처니지는 식량과 공업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지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지로, 상품재료를 얻기 위한 산업기지로, 인간 및 물체를 운송·운반하기 위한 도로와 철도로, 산업용수·생활용수 및 전력을 얻기 위한 저수지와 댐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한 관광휴양지로, 수송을 돕기 위한 항로나 항만으로 개발되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한치 앞의 편익에만 급급한 개발을 서둘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 오늘날 환경오염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과제로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탄산가스 증가에 따른 기상이변, 산성비에 의한 생태계 피해, 그리고 오존층 파괴와 사막화의 확대와 같은 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에 의한 에너지공급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냐 하는 점이 명쾌히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형태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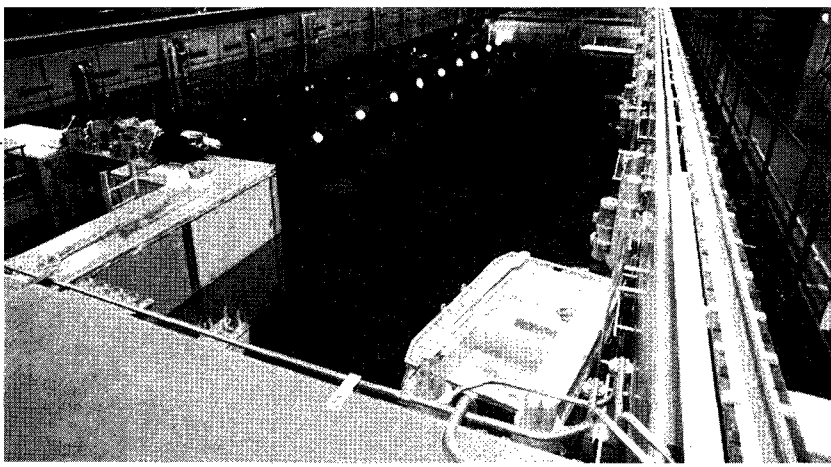
탄산가스나 질소산화물 등을 방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홍보전략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地球環境의 위기극복에 부심

올해 TIME지의 첫째호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과제를 진단하면서 온실효과와 기상이변 현상, 핵폐기물로 방사능오염,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뤄 환경보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취시켰다.

또 지난 해 12월 NATIONAL GEOGRAPHIC지는 “병든 지구는 회복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환경문제를 집중분석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상당 부분 거론되었다.

더불어 부시 미대통령은 국방비를 삭감하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에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비로 43억달러를 지난 2월 증액한 바 있고,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1988년 12월 유엔연설에서 군비축소와 더불어 세계환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국제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연설한 바 있다.



인류생존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은 국제경제의 안정, 국제평화를 위한 군비축소 등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대국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국내적으로도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6월 5일 제17회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담화를 통해 환경보전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역사상 대통령으로서의 최초의 환경보전선언으로 우리는 올해를 환경 원년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弘報부재가 낳은 結果

우리나라는 1960년대로 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된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정책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이 환경에 끼친 악영향.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도 입증되어 있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바, 우리나라도 주된 에너지원을 원전에 의존코자 1978년 도입 이래 11년이 지난 현재 9기가 운전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에너지중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이 원전이 왜 이처럼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도 인식부족이라는 궁색한 답변이 창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이해부족, 인식부족에 돌리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아울러 원전 반대주장에도 당사자들은 이처럼 인식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인식과 이해부족, 이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이론이 전개되면 “좋다”, “안전하다”로 일관하는 당사자들, 과연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금도 베일에 싸여있다. 원전이 가동된 이래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상 비밀속에 가려졌고, “경제성이 높다”는 식의 홍보만을 전개해 왔다.

한 예로 전남 영광원전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의 부인이 두차례의 무너아를 낳았다는 것이 보도될 때, 또 이곳 주민들이 방사능오염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직무유기를 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명쾌한 반론을 제기할 홍보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고 보면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인가. 최선의 선택은 최선의 안전을 요구한다는 진리가 배제된 미봉책의 홍보는 오히려 오해를 심화시킨다.

떠도는 말로 일축하는, 그리고 거대한 공권력을 업고 뽀질식의 홍보가 국민의 오해를 더욱 짙게 했고 신뢰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원전 경험 11년이라는 일천한 기간에 세계 각국이 경험한 안전성 문제나, 폐기물처리에 100%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홍보는 앞으로 극히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자량이 問題

원자력이용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기간이 건설기간 보다 열배 더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과거 사실상 사장되기 일췌였고, 특히 원전의 경우 건설 확정을 해놓고 시행한 것으로 이렇듯 원전이 좋다는 점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용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건설비용의 절감을 내세워 공기의 단축이나 기자재의 적당 사용(원전 건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하는 적당 풍조가 만연되었고, 더불어 국산화율 100%을 운운하는 것은 안전성에 더 많은 의구심을 준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전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환경보전과 맥을 같이 한다. 첨단과학이 만들어낸 오늘날 문명의 이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조작·운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방사성폐기물이 유출되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자 한전은 “국민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그것은 원전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하는 해명서를 냈으나, 얼마후 그것은 분명한 방사능이 오염된 폐기물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적당히 통하는 우리의 원전 경영상황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政治圈의 공감대 형성과 環境保全 認識

원전에 대한 인식고취 홍보, 이것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더구나 한전 혼자 힘으로 풀기에는 어렵다고 표현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잠겨진 원전자크를 열고 클린에너지의 총아 원전을 내세울 수 있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즉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가장 쉽게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학자나 환경학자나 단체 등을 총 동원하여 하나에서 부터 풀어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홍보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각계 전문가를 비상근 홍보위원으로 위촉, 원전 견학의 회수를 늘리는 방안이 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 원전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토론회를 자주 갖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중앙에서 뿐 아니라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원전 인근을 관광 지화하여 누구나 한번쯤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원전 현장에서의 활동 방법도 도식적 설명 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구사로 부터 의구심이 내포되어 있는 핵심부분을 파헤쳐 주는, 그래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원전이 추구하는 안전성 확보는 환경보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명쾌한 안내자의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쨌든 모두의 인식을 달리 할 명약은 우리의 현 풍토속에서는 정치권에서의 강력한 개입이다.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찌면 원전의 사활이 정치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우리의 풍토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이 극히 높고 양질의 전기공급도 좋지만, 천자만손이 억겁의 세월을 살아갈 이 환경을 보전하는데 원전이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이땅이 아니라 후손에게 잠시 임대한 이 땅을 잘 보전, 보호해 주인에게 넘겨 준다는 인식을 같이 해봅시다.